

종교



종교계에 우리상품-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저지하기 위한 종교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민계몽적 차원에서 국내전종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우리상품-우리농산물 소비운동과 우리밀살리기운동에 앞장서온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李寬鎭)는 지난 2월 제26회 정기총회를 갖고 3백만가톨릭신자들이 우리물산장려운동에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宣教局(총무 강병후 목사)은 지난 11일 都農공동체운동실무자 모임을 갖고 바른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공동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감리교측은 일차적으로 산물수화교회 교우들이 생산자 교회공동체를 조직, 무저공해농산물을 생산해내고 이를 먹거리를 동대문·우이·춘천중앙교회의 「소비자 교회공동체」가 전담 소비해 주기로 합의했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될 감리교의 「생산자·소비자 교회공동체」는 생산·유통·소비과정을 교단본부에서 총괄할 예정이며 전국 농촌교회와 도시교회가 계약재배 및 자매결연 관계를 맺게 된다.

특히 예장성회합동조합은 △농촌도시교회 敎友간의 무저공해농산물 공동생산구입△외국농산물 수입저지와 화학비료·제조제사용 줄이기 운동△都農교회 협력을 통한 농촌교회살리기 효과들을 함께 이뤄나가겠다.

국민계몽 차원 소중단에 확산

실천 4개항결의 스티커 차량부착 권유
都·農직거래 바른먹거리 생산·소비 추진

가톨릭
개신교

종교계 우리상품-농산물 애용운동 활발

다.
일부 재벌및 수입업자들의 무분별한 외국상품수입과 농수산물 수입을

있다. (세계일보 3월 7일자 보도)
「한국평협」총무 △외국산술과 담배추방△우리농산물 애용△자녀들의 외제화용품 사용금지△우리상품쓰기운동의 이목화산등 4개항결의하고 「우리상품 우리가 씹시다」란 스티커를 제작각종 차량부착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平協」은 우리상품 애용생활화를 주제로 한 문예작품 9월 30일까지 성인 청소년 어린이부(들)공모, 푸집한 시상신고를 통해 민조정기를 고취시키고 우리기업우리농촌살리기운동으로까지 연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범교단적 참여가 아쉽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개신교계에서도 이같은 우리상품의 自救운동 노력에 적극 동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농산물먹기 캠페인에 출품된 각 지역 특산품을. 종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상품-우리농산물애용운동이 외제상품·농산물수입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는 복안이다.
불교계서는 청년회 학생회등 일부 실행단체가 중심이 돼 우리농산물을 기우뚱을 추진중이며 불교는 불가의 보은바자회를 통해 교도들이 직접 생산해낸 무저공해 농수산물을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급하고 있다.
대종교 유교 천도교 증산교등에서도 신도 개인의 생활을 통한 우리상품애용우리농산물먹기운동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一連의 우리物産장려운동이 범종교적으로 뿌리내릴 경우 무분별한 외국농수산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물론 체질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국내 각 소비단체들의 우려를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종교계는 내다보고 있다.

〈李揆元기자〉